

'미스트롯3' 톱3, '영 트로트' 꿈은 다르다

톱3 정서주·배아현·오유진 트로트 세대교체
'최연소 우승' 정서주 "정동원 보고 트로트 시작"
"다양한 장르 하고파... 잊히지 않는 노래할 것"

트로트 오디션 원조 지식재산권(IP) TV조선 '미스트롯'이 영(Young) 트로트 시대를 열었다. 시즌3 진(眞) 정서주와 3위 미(美) 오유진은 모두 만 15세다. 할머니를 웃게 해주기 위해 트로트를 시작했다. 이들은 이제 팬들을 위해 노래하고 싶다는 마음가짐으로 무대 위에 선다. 다른 점이 있다면 트로트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장르를 섭렵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다.

최연소 우승자 타이틀을 얻은 정서주는 '미스트롯3'가 생애 첫 오디션이었다. 트로트를 처음 접한 건 코로나 팬데믹 시기 방송된 '미스터트롯'부터다. 당시 12세의 나이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정동원을 보고 트로트에 매료됐다. "제 또래가 그런 큰 무대에서 떨지도 않고 노래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해보고 싶었어요. 그때부터 정동원 오빠의 노래만 듣고 트로트를 시작했죠. 그때 외삼촌이 돌아가셔서 할머니가 정말 힘들어하셨거든요. 제가 트로트를 불러드리니까 할머니가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때 할머니의 웃는 모습을 보고 할머니를 위해서 노래하고 싶었어요."

오유진은 일찌감치 오디션을 통해 얼굴을 알린 스타다. 2020년 KBS 2TV 트로트 오디션 '트롯전국체전' 동메달(3위), 2021년 MBC TV 아이돌 오디션 '방과 후 스텝' 준결승 이력이 있다. 아이돌로 잠시 꿈의 노선을 틀었지만 '미스트롯3'으로 다시 제자리를 찾았다. "트롯전국체전" 때는 초등학교 5학년이어서 뭣도 모르고 할머니가 트로트를 좋아하시니까 나갔어요. 3등을 했으니 신기했죠. 아이돌 프로를 나갔는데 트로트를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나는 태생부터 트로트를 해야 하는 사람이구나"라고 느꼈죠. '미스트롯3'에서는 보다 다채로운 모습 보여주고 싶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든든한 언니 배아현(27)이 있다. 배아현은 정서주와 단 22점 차이로 선(善)이 됐다. 두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나이가 있지만 아직 20대에 불과하다. 배아현 역시 만 18세에 트로트를 시작하기도 했다. "전 무명 시간이 길었어요. 8년이나 됐죠. 오디션에 나갔는데도 제자리걸음이었어요. 왜 그렇게 제자리걸음을 하나 고민이 많았을 때 '미스트롯3' 공고를 봤어요. 내가 어떤 가수인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가수인지 국민들의 평가를 받고 싶은 마음으로 다시 한번 도전하

게 됐죠." 세 사람 모두 팬덤을 거느리며 각종 투표에서 선두를 달렸지만, 톱3까지 생각하지 못했다. 당초 콘서트 기회가 주어지는 톱10 목표였다고 입을 모았다. 그 와중에도 정서주의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배아현은 옆에서 '너는 1등 할 수 있는 가수다. 될 거 같아'라고 용기를 북돋아 줬다고.

"1위까지 하게 되니까 사실 지금도 실감이 안 나요. 전 아직도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과 놀고 집에 가면 휴대폰 보고 엄마와 투닥투닥 하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최연소 타이틀은 아직까지 크게 부담감으로 다가오지 않아요."(정서주)

정서주는 아직 우승 상금 3억원의 행방을 모른다. 부모님에게 온전히 맡겼기 때문. "할머니, 할아버지 의료기기 사드리고, 부모님은 하와이 여행을 보내드리고 싶어요. 전 기타를 하나 사고 싶어요"고 했다. 그러자 배아현은 "서주가 나에게 10억을 줘야 한다"며 웃었다. 정서주는 "제가 1등 할 것 같다면, 무슨 소리냐고 제가 1등 하면 아현 언니에게 10억을 주겠다고 했다"고 귀여운 에피소드를 공개했다.

경쟁 상대였지만 함께 성장통을 겪으며 단단해졌다. 무대 경험 없던 정서주는 특히 배아현에게 의지했다. 정서주는 "무대에서 정말 많이 땀이 땀다. 손에 땀이 한 바가지가 되고 힘이 바짝 말라서 무대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며 "아현 언니한테 무대 위에서 어떻게 안 떠는지 물어봤는데 자신을 믿으면 된다고 하더라. '나는 할 수 있다'고 주문을 외우면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유진은 "성장한 부분이 많았는데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웠다. 사회생활하는 법을 배워서 제 인생에 도움이 된 오디션이다"라고 강조했다.

오디션이라는 마라톤을 완주한 이들은 또 다른 미래를 꿈꾼다. 10대 가수들은 영 트로트의 특징인 장르 확장에 욕심이 있다. 임영웅, 정동원 등 트로트에 국한하지 않고 활동을 이어가는 예가 있다. 오유진은 "설운도 선배님을 보고 싱어송라이터의 꿈을 꾸게 됐는데, 다른 장르도 해보고 싶다. 아이유님은 국민 원톱이지 않나. 다양한 일을 다 잘하시니까 롤모델로 삼았다"고 했다. 임영웅이 롤 모델이라는 정서주는 "임영웅님은 팝이나 발라드, 빠른 노래도 잘하더라. 저도 다양한



장르를 잘하는 가수가 되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도 아이유님을 좋아한다. 싱어송라이터 꿈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반면 정동원 트로트에 감정이 있는 정서주는 "주현미 선생님은 본인의 색깔을 갖고 끝까지 지키고 있지 않나. 주현미 선생님처럼 오래 노래 가수를 하고 싶다"며 "많은 국민들에게 위트가 되고 행복을 드릴 수 있는 가수가 되고 싶다"고 했다.

선망하던 선배 가수와의 협업도 바라고 있다. 정서주는 "노래를 시작할 때부터 드라마 OST를 해보고 싶었다. 임영웅님이 OST 사랑은 늘 도망가'를 부르지 않았나. 제 친구들도 그 노래로 임영웅님을 좋아하게 됐다. 함께 작업하고 싶은 바람이다"라고 했다. 오유진은 심사위원이었던 진성을 꼽으며 "제가 국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국악 느낌이 있다. 진성 선생님과 목소리 매치가 잘 된다. 진성 선생님의 노래를 많이 들었는데 이 름이 같이 올라간 음원을 갖고 싶다"고 했다.

최종 목표는 장수하는 가수다. 정서주 "국민들에게 잊히지 않는 노래를 하는 가수가 되고 싶다"고 했다. 배아현 역시 "저만의 곡을 만나서 국민들에게 좋은 노래를 선물하고 싶다. 무명 생활을 오래 하면서 나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개인 콘서트를 할 수 있는 가수가 되고 싶다"고 했다. 오유진은 "아이유 선배님이 배우로도 잘 되고 여가수 중에 제일 큰 규모로 콘서트를 한 분이 아니냐"라며 만능 엔터테이너를 꿈꿨다.

당분간은 톱7과 함께 활동한다. 내달 이들을 위한 스페셜 프로그램이 첫 방송되고, 5월 전국투어 콘서트 포문을 연다. 이제껏 보여주지 못한 다양한 모습을 집약한 무대가 준비돼 있다. 댄스 무대를 관련 포인트로 잡아 기대감을 높이기도 했다. "콘서트만의 매력은 관객들과 소통하는 부분이 크잖아요. 예전처럼 가수로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게 가장 될 것 같아요. 정말 재밌을 거예요."(오유진)



YG 베이비몬스터, 7인조 완전체로 오늘 정식 데뷔

YG엔터테인먼트 신인 걸그룹 '베이비몬스터'가 1일 정식 데뷔한다. 이날 0시 미니 1집 '베이비몬스터(BABYMONSTER)'를 발매한다. 첫 미니 앨범의 선공개곡 '스턱 인 더 미들(Stuck In The Middle)'까지는 6인조로 활약했으나, 첫 미니앨범 활동부터는 7인조 완전체로 나선다. 그간 건강 문제로 팀 활동 시작에 함께 하지 못한 아현이 합류한다.

3월 31일 YG엔터테인먼트는 "차세대 YG를 대표할 신예(BABY)의 무한한 잠재력, 괴물(MONSTER)같은 실력에서 비롯된 이유 있는 자신감을 비추며 7명으로 비로소 완전체로 음악 세계를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베이비몬스터는 타이틀곡 '쉬시(SHEESH)'로 세상을 놀라게 만들겠다는 당찬 포부를 내세웠다. YG 특유의 아이덴티티가 녹아있는 힙합 장르의 댄스곡이다. 바로크 스타일의 피아노 선율과 웅장한 신디사이저 사운드가 한데 어우러져 압도감을 선사한다. 신인임에도 완성형인 실력이 곡에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감각적 음색으로 완성된 빌드는 시작과 동시에 리스너들을 빠져들게 하며, 끝이 어긋났던 에너지를 터뜨리듯 폭발적인 보컬과 귀에 내려 꽂히는 래핑이 분위기를 단숨에 전환시키며 짜릿한 쾌감을 안긴다.

곡의 매력을 극대화할 퍼포먼스 역시 기대를 모은다.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가 직접 나서 안무를 최종 결정한 데다, 바다를 비롯한 최정상급 안무가들이 참여해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예감케 했다. 후렴구 반복되는 '쉬시'에 맞춰 힘차게 팔을 돌리고 발로 차는 포인트 안무, 특유의 그루비함과 스웨그로 완성된 브릿지 단체 군무 등이 강력한 중독성을 불러일으킨다.



아이유, 방콕 공연도 '단숨' 매진...한때 '서버 마비'

톱 가수 겸 배우 아이유(IU·이지은)의 월드투어가 잇따라 매진 행렬을 기록하고 있다.

3월 31일 소속사 이담(EDAM)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아이유가 오는 6월 29~30일 태국 방콕 임팩트 챌린저 홀1(Impact Challenger Hall1)에서 펼치는 '2024 아이유 허 월드 투어 콘서트 IN BANGKOK'이 매진됐다. 전날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티켓 선예매에서 표가 모두 팔려나갔다.



남일우 노환으로 '별세'

배우 남일우가 3월 31일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향년 86.

1957년 연극배우로 데뷔한 남일우는 1958년 KBS 성우 공채 1기에 합격했다. 1964년 KBS 공채 4기 탤런트로 연기를 시작했다. 드라마 '제2공화국'(1989~1990) '제3공화국'(1993) '지평선 너머'(1997~1998) '매화연가'(2001) '야인시대'(2002~2003) '아현동 마님'(2007~2008) '위험한 사랑'(2005), 영화 '친절한 금자씨'(2005) '이장과 군수'(2007) '남자가 사랑할 때'(2014) '내부자들'(2015) '신과함께-인과 연'(2018) 등에 출연했다.

고인은 연예계를 대표하는 배우 가족으로 사랑받았다. 남일우는 배우 김용림과 1965년 결혼했으며,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 아들 남성진이 배우로 활동하며 동료 배우 김지영과 2004년 결혼했다.

이효리, 결국 '눈물'... "음악, 마음 울리는 걸 다시 느꼈죠"



"근데 음악이라는 게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잊고 지냈는데... 사람 마음을 울리는 거를 이번에 '레드카펫' 하면서 다시 한번 느껴 고마워요."

가수 이효리가 3월 29일 오후 방송된 KBS 2TV 뮤직 토크쇼 '더 시즌즈-이효리의 레드카펫' 마지막회 13회에서 작별 인사를 전했다.

이날 '이효리의 레드카펫' 마지막회의 첫 번

MC 맡은 '더 시즌즈 - 레드카펫' 3월 29일 종영

째 게스트로는 '디바' 정미조가 등장했다. 정미조는 같은 날 마지막 무대로 이효리와 '엄마의 봄'을 준비했다. 녹화 전 정미조와 진행한 합주에서 이효리가 눈물을 흘리는 영상이 공개됐다. 이효리는 정미조와 무대 후 정미조에게 "요즘 엄마 생각을 많이 하고 있던 때였는데, 이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어 선물 같은 시간이었다"고 했다.

또 이날엔 '박재범의 드라이브', '최정훈의 밤의 공원', '악뮤의 오날오밤' 등 '시즌즈'의 MC들이 총출동했다. 프로그램 추억담을 나눈 4팀의 MC는 막바지에 KBS 심야 프로그램 중 하나인 '이문세쇼'를 이끈 MC 이문세의 곡인 '걸

은 밤을 날아서'를 선곡해 의미 있는 무대를 선사했다.

관객들의 앙코르 요청에 홀로 다시 무대에 오른 이효리는 "마지막 인사를 제대로 드려야 될 것 같다. (거주지인) 제주도에서 올라온 복장으로 같이입었다. 그동안 화려하고 예쁜 옷 입혀주신 스태프분들 감사하다. 레드카펫은 끝나지만 시즌즈 계속되니까, 다음 MC 사랑해주고 아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룹 '빅뱅(BIGBANG)'의 '봄여름가을겨울(Still Life)'을 불렀다. '레드카펫'을 위해 직접 개사한 랩을 선보이던 결구 눈물을 보였다.

에이티즈, 英 오피셜 세부차트 장기집권

대세 그룹 '에이티즈(ATEEZ)'가 역주행하는 등 영국 오피셜 세부차트에 13주 연속 진입하며 장기집권 중이다.

3월 29일(현지시간) 오피셜 차트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일 발매된 에이티즈의 정규 2집 '더 월드 에피소드 파이널 : 윌(THE WORLD EP.FIN : WILL)'이 최근 오피셜 피지

컬 앨범 차트(Official Physical Albums Chart) (3월29일~4월4일)에서 20위를 차지했다.

또 오피셜 앨범 세일즈 차트(Official Albums Sales Chart) 23위, 오피셜 스키티시 앨범 차트(Official Scottish Albums Chart) 23위를 차지했다.

특히 오피셜 스키티시 앨범 차트는 지난주



80위로 재진입한 것에 이어 이번 주는 무려 57계단이나 훌쩍 올라섰다.